

한국영화 최고 뉴스는



'기생충' 아카데미 수상

영진위 'K-무비' 10대 뉴스 설문... 1926년 나운규 '아리랑' 개봉
1966년 스크린쿼터제 실시... '서편제' 사상 첫 100만 관객 돌파

국민들이 생각하는 한국 영화 최고의 뉴스는 무엇일까.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실시한 'K-무비(한국 영화)' 10대 뉴스 설문조사에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시상식 4관왕 달성이 1위를 차지했다. 지난달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진행된 이벤트에는 총 7615명이 참여했다.

송강호 등이 주연을 맡은 '기생충'은 제7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장편 영화상을 받았다. '기생충'이 2019년 칸 영화제 최초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사실은 651표를 얻어 2위로 선정됐다.

3위는 '한국 영화 100주년' (442표)이 차지했다.

한국영화는 1919년 10월 27일 서울 종로 단성사에서 상영된 연쇄극 '의리적 구토(義理的 仇討)'를 시작으로 2019년 100주년을 맞았다. 특히 '기생충'이 한국 영화 100주년이 되던 해 아카데미를 비롯해 전 세계 영화상을 휩쓸면서 더욱 의미가 있었다.

4위는 '1966년 스크린쿼터제 실시' (422표)가 차지했다. 5위는 전 세계인의 축제로 자리잡은 부산국제영화제 출범(1996년)이었다.

6위는 윤여정 배우가 영화 '미나리'로 최초 미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2021년)을 수상한 뉴스가 차지했으며 1926년 무성영화 대표작 나운규 감독의 '아리랑' 개봉이 뒤를 이었다.

1987년 고(故) 강수연 배우가 임권택 감독의 '씨받이'로 베니스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최초의 월드스타가 탄생한 일도 밝혔다. 강수연은 이후 '야재야재 바라야재'로 모스크바영화제에서도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최초 월드 스타 탄생 후 배우들의 활약이 이어졌다. 전도연과 송강호가 '밀양'과 '브로커'로 칸영화제 여우주연상과 남우주연상을 수상했고 '밤의 해변에서 혼자'의 김민희는 베를린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1993년 임권택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오정해·김명곤이 주연을 맡았던 판소리 소재의 영화 '서편제'가 국내영화 최초로 100만 관객을 돌파한 사실은 9위였다.

10위는 1935년 이명우가 연출한 최초의 발성영화 '춘향전' 공개가 차지했다.

함께 실시된 '영진위 10대 뉴스' 설문조사에서는 '1973년 영화진흥공사 창립' (935표)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1999년 영화진흥위원회 출범' (751표), 3위는 '1984년 한국영화아카데미(KAFA) 설립' (706표)이 꼽혔다. /김미은 기자 mekim@

미래상품·서비스 분야 디자인 공모

광주디자인진흥원 28일까지... 우수작, 국가 R&D 사업 기획 참여

(재)광주디자인진흥원(원장 송진희)은 서남권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2023 미래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아이디어 공모는 창의적인 디자인과 기술, 지역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미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미래상품 분야(디자인 지역산업 기술을 융합한 미래상품 아이디어) ▲미래 서비스 분야(디자인과 새로운 서비스를 융합한 아이디어) 등 2개 분야로 공모한다. 특히 미래상품 분야는 광주(스마트 가전, 미래 자동차, 인공지능 등), 전남(미래 수송기기, 농생명·식품, 라이프케어 등), 전북(첨단 운

송기기, 바이오 헬스케어 등), 제주(정정헬스푸드, 지능형 관광콘텐츠 등) 등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된 아이디어를 발굴한다.

응모 대상은 광주, 전남·북, 제주 디자인 관련 기업(대표, 제작자 포함), 프리랜서, 학생 등이며,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20건을 선정, 개발비 300만 원을 지급하며 우수 디자인 2건은 시제품 제작까지 별도 지원하고 우수 아이디어는 국가 R&D 사업 기획에 참여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소쇄원 한시 150수 주제별 정리

전남대 김대현 교수 '소쇄원 한시선' 발간

한국 민간원림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담양 소쇄원(명승 40호)은 남도 문화유산의 보배이다. 조선시대 선비들의 교유의 장 뿐 아니라 자연에 대한 경외와 순응의 의미가 투영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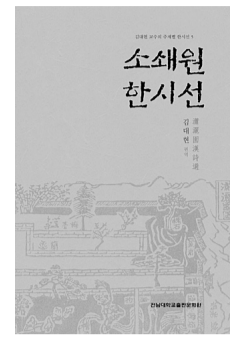
소쇄원이 만들어질 때부터 근대기까지 이어진 한시 150수를 주제별로 정리한 한시선이 발간됐다.

전남대 국문과 김대현 교수가 최근 '소쇄원 한시선'을 펴냈다.

김 교수는 당초 허서 김인후의 '소쇄원 48영', 방암 양경지의 '소쇄원 30영'에 대한 좀더 완전한 번역을 생각했다. 그러나 소쇄원의 현판 한시, 관련된 작품이 추가되면서 이번 한시선집으로 엮은 것.

알려진 대로 소쇄원의 '소쇄' (瀟灑)는 맑고 깨끗하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시원한 어감이 나뉘듯 오랜 옛 문인들이 시어로 많이 활용했다. 또한 소쇄원은 기묘사화로 인한 벼슬에 나가지 않았던 양산보(1503-1557)에 의해 건립이 시작돼 오늘에까지 이어졌다.

김 교수에 따르면 소쇄원 한시는 1755년 '소쇄원사설'이라는 제목으로 간행된 바 있다. 이후 1963년 양만환 등 후손들에 의해 서



인본 3책으로 간행됐다.

이번 책에는 양산보의 '소쇄원 제영'과 '면양정 제영', 송순의 '소쇄정', '소쇄처사를 보내면서' 외에도 임억령의 '지암에게 드림', 김인후의 '소쇄원에 드리다', 양자징의 '소쇄원', 고경명의 '만시' 등의 시와 번역이 담겨 있다.

호남지방문화연구원 소장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호남 지방문화원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호남누정 기초목록', '광주문화재단 누정총서 10권' 등 누정 원림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정리했다.

한편 김 교수는 "20여 년 전부터 소쇄원에 대한 몇 편의 논문을 썼고, 틈나는 대로 소쇄원을 찾아서 시문을 감상하는 즐거움을 누렸다"며 몇 년 전에는 전남대 '소쇄원 연구회' 회원들과 관련 한시를 함께 읽었는데 그때 읽었던 원고가 바탕이 돼 책을 엮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박성현 기자 skypark@

우리 춤이 '현대'를 만난다면?

국립남도국악원, 8일 대극장 진악당서 류무용단 초청공연



국립남도국악원은 8일 오후 3시, 대극장 진악당(전남 진도)에서 류무용단(사진) 초청공연을 펼친다.

이번 공연은 '우리 춤과 현대적인 요소가 만난다면?'에서 시작되었다. 공연 작품은 '상상 부채춤', '상상 강강술래', '살풀이춤을 재해석하다', '선입무', '상상 사랑가', '한국의 미 II' 등 총 6작품이다. 우리 춤과 현대적인 요소가 만나는 상상을 통해 어떤 작품이 만들어졌는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류무용단은 루마니아에서 열린 국제 포크댄스 페스티벌에서 1위, 제2회 브라질 세계챔피언십, 제22회 터키 이스탄불 국제 부채

메제 컬처 앤드아트 페스티벌 등에서 1위를 수상했다.

한편, 진악당(공연장) 로비에는 올해 새롭게 전시공간이 조성됐다. 이 공간은 최첨단 IT 기법을 활용한 국악기 전시를 비롯해 재미있는 실감형 전시 콘텐츠와 국악기 음원 감상 등을 체험할 수 있어 공연과 전시, 체험을 한 장소에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공연은 무료이며, 공연 전후 진도 읍내와 국악원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제공하며 12월까지 공연 스탬프 쿠폰 이벤트를 진행,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